

북한이탈주민의 정보요구와 정보행태에 관한 연구*

- 부산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

Information Needs and Behavior of North Korean Refugees

조 용 완(Yong-Wan Cho)**

목 차

- | | |
|------------------|---------------------|
| 1. 서론 | 2.2 정보요구의 구체적 내용 |
|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3. 북한이탈주민의 정보행태 |
| 1.2 데이터 수집방법 | 3.1 정보에 대한 인식과 입수태도 |
| 1.3 선행연구 분석 | 3.2 일상생활의 정보원과 선호도 |
| 2. 북한이탈주민의 정보요구 | 4. 결 론 |
| 2.1 정보요구의 전반적 경향 | |

초 록

최근 우리사회에 급증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부적응 현상을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봉착해 있는 적응과 정착의 문제를 '정보'의 관점으로 접근해 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사회의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보요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취업/사업에 대한 정보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복지혜택, 건강/안전, 육아/교육, 북한소식, 언어/식양 등의 순으로 정보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정보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에서는 많은 한계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들은 남한사회 정착에 필수적인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공식적인 기관이나 단체를 활용하기 보다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가족, 친구, 이웃을 통해 폐쇄적으로 정보를 입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TV와 신문, 인터넷 등 대중매체 정보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모습은 나타났으나 현재 그들의 정보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입수하여 삶의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ABSTRACT

In recent days North Korean refugees, who hope to move into and settle in South Korea, have been rapidly increasing. However their adaptation to South Korea is reported to have not been so much successful as they expected. Considering such situations, this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their information needs and behavior. North Korean refugees have various and strong information needs for settlement and daily life. The strongest were information needs related to economic problem, specifically job and business related information needs. It was followed by information needs related to social welfare, health and security, child care and education, and North Korean situation. In order to meet their information needs, North Korean refugees were heavily dependent on informal interpersonal information sources such as their family members, friends, and their own neighborhoods, as compared to such formal interpersonal information sources as public officers, social welfare agents, and NGOs members. Meanwhile, their usage of mass media such as TV, newspapers, and internet as information sources was also heavy. However the overall information environment surrounding them appeared to be relatively inferior to that of average South Koreans.

키워드: 탈북자, 새터민, 소수민족, 소외계층, 정보행태, 정보요구, 정보빈곤

North Korean refugee, minority, ethnic group, information behavior, information need, everyday life information seeking, information poverty

* 이 연구는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일부의 축약본이다.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ps2all@pusan.ac.kr)

논문접수일자 2006년 8월 14일

게재확정일자 2006년 8월 15일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북한이탈주민 1만명 시대”가 예고되고 있다. 통일부의 자료에 의하면,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연간 10명 내외로 매우 적은 인원이 남한으로 입국한 반면, 1990년대 후반에는 연간 100명 안팎으로 늘어나더니,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연간 1천명을 넘어 거의 2천명에 육박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¹⁾ 이러한 대규모 탈북러시의 결과로, 2006년 현재 약 1만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그간 적대적이고 이질적이었던 남한사회에서 적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남한에 들어와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은 잘 적응하며 지내고 있는가?

“첫째, 사기 한 번 당해야 한다. 둘째, 회사 한번 때려 치워야 한다. 셋째, 개인사업하다 부도 한번 맞아봐야 한다. 넷째, 사고 한 번 당해봐야 한다. 다섯째, 첫 애인과 이별해 봐야 한다. 여섯째, 알콜중독에 빠져 봐야 한다.”²⁾

이 인용문은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의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이야기로, 남한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통과의례를 기록한 것이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안타깝게도 그들은 남한사회 적응을 위해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남한물정을 몰라 정착지원금을 사기당하는 경우는 다반사이고,³⁾ 일부는 적응에 실패하고 일탈을 일삼아 사회문제가 되기도 한다.

물론, 정치이념과 경제체제, 문화와 사고방식, 언어 등 모든 것이 낯선 이 곳에서 그들이 적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시행착오의 정도와 빈도가 해가 갈수록 악화된다면 이것은 심각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왜냐하면 향후 지금에 비할 수 없는 대량 탈북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초기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정이 갈등과 혼란으로 계속 이어진다면,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에 정착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리면서 남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막탈당하게 되고, 남한사람들도 ‘북한사람들’과 다가올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회피하거나 거부하고 싶은 것으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곁도는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이러한 부적응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북한이탈주민의 대량 입국과 향후 적응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행정학, 교육학, 심리학 등 여러 학문분야에서 복지정책, 행

1) 2005년말 현재 7,691명이 입국하였다.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Cited 2006.3.10].

2) 북한이탈주민후원회 홈페이지<<http://www.dongposarang.or.kr>>에 게시되어 있는 <어느 북한이탈주민의 수기> 중에서 인용. [Cited 2005.10.5].

3) 북한이탈주민후원회 홈페이지의 각종 수기나 관련 단체 홈페이지의 각종 체험 수기, 그리고 세계일보의 <2004 탈북자 실태보고서>(2004년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4회에 걸쳐 연재) 시리즈 기사 등을 읽어보면, 사기나 도박, 보증 등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은 사람이 드물 정도이며, 이 연구에서 진행된 심층면담에서도 이런 가슴아픈 이야기들은 다반사로 등장하고 있다.

정지원체계, 심리적 안정, 교육, 취업 등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를 가진 자는 사회의 주류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정보의 빈곤으로 인해 소외계층이 되는 고도화된 정보사회에서 정보를 주요 키워드로 삼아 북한이탈주민의 현실 부적응 문제를 분석하려는 시도는 아직도 남겨진 과제로 존재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과 같이 지금까지 살아오던 곳을 떠나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정착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은 그 곳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과 달리 생존과 적응에 매우 많은 어려움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정보의 부족과 열악한 정보환경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새로운 사회의 언어가 서로 달라 원활한 정보교환이 불가능한 경우가 다반사이며, 대부분 자신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정착을 지원하는 지지근거가 거의 없거나 매우 빈약한 상태이다. 게다가, 북한이탈주민과 같이 완전히 다른 정치·경제적 체제와 사회·문화에 적응하며 살아야 하는 경우에는 더욱 더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정보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가 적체적소 그리고 적절한 시간에 공급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보의 관점에서 사회의 빈곤층, 소수집단, 소수인종 등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그들 소외집단은 열악한 정보환경 속에서 만성적인 정보결핍에 빠져 있으며 이로 인해 정보행태가 더욱 수동적이고 무기력해지며, 다시 이로 인해 정보사회에서 주변부의 삶을 벗어나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이제환, 장덕현, 이연옥 2004)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인간답게 살고자” 남한을 기회의 땅으로 여기고 들어왔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들은 경쟁사회인 남한 사회에 대한 정보를 하나도 가지지 못한 채 “약육강식의 정글”에 뛰어들어 버린 것이다. 짧게는 20년, 길게는 50년 이상을 거의 모든 면에서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그들에게 새로운 사회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지 않는다면, 그들이 꿈꿔왔던 “기회의 땅”은 또 다른 “유배의 땅”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은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봉착해 있는 적응과 정착의 문제를 “정보”의 관점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체제와 이념, 문화와 사고방식 등 모든 것이 판이한 남한에 들어와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무엇이고,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지, 그리고 필요한 정보는 적절한 과정과 방법으로 제때에 제공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들이 그것을 이용하는데 있어 장애요소는 없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그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정보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1.2 데이터 수집방법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이 연구

에서는 연구자가 거주하고 있는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20대 이상의 북한이탈주민들을 연구 대상 집단으로 선정하고 심층면담과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⁴⁾ 우선 심층면담 대상자의 선정은 일반인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을 쉽게 접촉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부산지역의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와 종교단체 등의 도움을 얻어 소수의 면담대상자들을 선정하고 그로부터 면담대상자를 확대해 나가는 점증적 확대표집방법(snowball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심층면담에는 총 16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참여하였는데, 사전에 전화통화를 실시한 후 주로 그들의 가정에서 진행하였고, 일부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그들이 일하고 있는 가게 등에서 실시하였다. 면담은 피면담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을 수 있도록 반구조화된 면담기법을 사용하였다.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1-2시간 정도였으며, 면담 내용은 면담 참여자의 동의를 거쳐 모두 녹음하였으며, 면담직후 녹음한 내용에 대해 전사를 실시하였다.⁵⁾

심층면담에 참여한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각각 8명씩이었고, 이들의 평균 연령은 42.7세로, 20대가 2명, 30대가 3명, 40대가 9명, 50대 1명, 60대 1명이었다. 이들의 거주지별 분포는 사하구 4명, 해운대구 3명, 영도구와 사상구, 북구가 각 2명, 그리고 금정구가 1명이었고, 부산 인근의 김해시도 2명이 있었다. 이들의 직업유형은

자영업 5명, 정규직 4명, 아르바이트 4명, 무직 3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25%는 독신 거주이지만, 75%는 같은 북한이탈주민들과 거주하고 있었고, 62.5%는 고등중학교 졸업이고 나머지는 전문학교와 대학 졸업 수준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절반은 종교를 기독교로 가지고 있는 반면, 절반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평균 남한정착 기간은 3년이었다.

다음으로, 설문조사를 위한 표본의 선정작업에 있어서 부산지역 북한이탈주민 실제 거주자가 350명 내외이며, 공식적으로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들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과학적인 표본 추출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이에 부산과 김해지역 거주자들 중 150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는 한 교회를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일부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대인관계가 매우 활발한 북한이탈주민의 도움을 받아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조사는 총 6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토대로 실시되었는데, 북한이탈주민의 정보요구와 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취하는 일반적 행태에 관한 질문들과, 각종 매체 정보원, 정착관련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등 기관 정보원, 대인 정보원 이용행태에 대한 질문, 기타 사회인구학적 질문들로 이루어져 있다. 설문지는 교회의 주일 예배시간을 통한 배포와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을 통한 개별적 배포를 병행하였는데, 총 160부가 배포되어 그 중에서 89

4)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2005년 4월 30일 현재 부산에는 383명이 거주하고 있다(통일부 2005a)

5) 한편,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착에 관한 각종 지원과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들과 자주 접촉하고 있는 부산 지역의 공공기관과 민간·종교기관의 담당자들 10명(거주지보호, 취업보호, 신분보호 담당관 각 1명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업 중인 복지관 실무자 3명, 부산 YWCA 새터민 지원센터 팀장, 수영로 교회 북한선교부 부장집사, 적십자사 부산지사 담당자, 북한이탈주민 단체인 송의동지회 부산경남지부장 등)에 대한 면담도 실시하였다. 단, 적십자사 담당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E-mail 면담으로 대체하였다.

부가 회수되었다.⁶⁾ 설문조사에 참가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설문조사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

항목		빈도(89명)	비율	유효비율
성별	남자	43	48.3%	49.4%
	여자	44	49.4%	50.6%
	무응답	2	2.2%	
연령	20대	12명	13.5%	13.8%
	30대	32명	36.0%	36.8%
	40대	23명	25.8%	26.4%
	50대	11명	12.4%	12.6%
	60대 이상	9명	10.1%	10.3%
	무응답	2명	2.2%	
거주지역	북구	18	20.2%	22.0%
	해운대구	18	20.2%	22.0%
	사하구	16	18.0%	19.5%
	사상구	15	16.9%	18.3%
	영도구	7	7.9%	8.5%
	김해/진해	8	9.0%	9.8%
	무응답	7	7.9%	
거주유형	독신	30	33.7%	40.0%
	북한이탈주민과 거주	44	49.4%	58.7%
	남한사람과 거주	0	0.0%	0.0%
	북한이탈주민+ 남한사람과 거주	1	1.1%	1.3%
	무응답	14	15.7%	
입국연도	2000년	1	1.1%	1.2%
	2001년	12	13.5%	14.0%
	2002년	12	13.5%	14.0%
	2003년	19	21.3%	22.1%
	2004년	26	29.2%	30.2%
	2005년	16	18.0%	18.6%
	무응답	3	3.4%	
학력	인민학교 졸업	5	5.6%	6.0%
	고등중학교 중퇴	4	4.5%	4.8%
	고등중학교 졸업	48	53.9%	57.1%
	전문학교 중퇴	1	1.1%	1.2%
	전문학교 졸업	11	12.4%	13.1%

6) 교회 예배시간을 통한 수집된 양은 46부, 개별적 배포를 통해 수집된 양은 43부였다. 그리고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대부분이 부산지역 거주자였으며, 부산과 인접한 김해와 진해지역의 거주자도 일부 참여하였다. 설문조사에서 설문지의 회수 분량이 적은 까닭은 먼저 모집단의 규모가 김해지역까지 포함하여 400명 내외로 적고, 관계 기관에 근무자가 아닌 상태에서 그들 전체에 접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 들어온 이후 통일부나 하나원,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통일연구원 등과 같은 국책연구기관,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실시한 과도할 정도의 설문조사로 인해 설문조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그들 집단 내부에 팽배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대학교 중퇴	2	2.2%	2.4%
	대학교 졸업	13	14.6%	15.5%
	무응답	5	5.6%	
종교	기독교	63	70.8%	78.8%
	천주교	4	4.5%	5%
	종교 없음	13	14.6%	16.3%
	무응답	9	10.1%	
직업	자영업	14	15.7%	16.9%
	전문직	1	1.1%	1.2%
	일반 정규직	4	4.5%	4.8%
	비정규직	13	14.6%	15.7%
	시간제 근로	12	13.5%	14.5%
	학생	7	7.9%	8.4%
	무직	30	33.7%	36.1%
	기타	2	2.2%	2.4%
	무응답	6	6.7%	

1.3 선행연구 분석

대부분 한 사회에서 비주류로 살아가고 있는 소수민족들은 주로 이민자와 난민,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로, 사회 내의 중심이 아닌 주변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사회와 다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배경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남한에 정착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은 그들이 남한사람들과 같은 민족이며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수민족들과 유사한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소수민족의 정보요구와 정보행태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정보요구와 정보행태를 밝히는데 있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소수민족에 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u(1993)는 LA지역 60세 이상 중국 이민자들의 정보요구와 정보추구행태를 조사하고자 18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그들의 정보요구는 다양했는데, 그 중 모국의 상황과 미국의 상황 전반에 대한 정보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건강정보와 여가 및 취미관련 정보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보요구 충족을 위해 그들은 신문이나 TV 등의 대중매체를 활용하거나 가족, 친구 등 대인 정보원을 활용하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조사 참여자들이 영어에 익숙하지 못하고, 영어보다는 중국어로 된 다양한 매체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밝혀, 그들이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sher(2005)는 미국 워싱턴 주에 이민 온 라틴계통의 농장 근로자와 그 가족의 정보행태와 정보기반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이주민 농장근로자 교육기관인 Community Technology Center 근로자와 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현장 관찰과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그들은 인터넷이나 도서관과 같은 정보원들보다 대인정보원을 더욱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장 근로자들의 주요 정보기반은 교회, 학교, 직장 등이며 여기에서 가깝부터 지역 역

사, 영어교육, 여가와 관련된 정보를 얻고 있었다. 한편 그들은 영어와 관련된 장애로 인해 정보추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그 외에 소외감이나 문화적 차이 등도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정보요구와 정보추구행태에 관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윤정옥(1993)은 1990년대 초 한인 밀집 거주지인 미국 LA에서 한인 204명을 대상으로 지난 3개월간의 정보요구와 이를 위해 사용한 정보, 그리고 그 선택이유 등에 관해 구조화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한인들은 자녀양육 및 교육, 경제문제, 건강 및 정신건강, 이민생활 등에 대한 정보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한인들은 전체적으로 친구/이웃, 가족/친척 등 비공식 대인 정보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관련분야 전문가와 신문, 도서 등 대중매체 정보원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미국 정보원보다는 한인 정보원에 대한 의존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ho(2002)는 미국 한인 이민 1세대의 정보추구행태를 연구하기 위해 텍사스 델러스 지역에 거주하는 이민 1세대 36명과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그들의 주요 정보요구는 자녀 교육, 직업개발을 위한 교육기회, 필수적 생활 정보, 가족관련 문제, 주류사회 정보, 사업관련 정보, 일반적인 법률 정보, 건강보험, 주택 정보, 기초 컴퓨터 기술, 세금지원, 영어능력 향상 등임을 밝혔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정보요구 충족을 위해 한인 친척, 친구, 이웃 등과

같은 비공식적인 대인채널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으며, 주류사회의 공식적 기관이나 미국인 전문가는 거의 이용하고 있지 않았으며, 지역 공공도서관은 그들의 일상적 정보요구를 충족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장소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들의 부딪히는 언어장벽은 이용가능한 정보원의 범위를 제한하며, 이민자의 사회적 고립과 주류사회로부터의 고립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Jeong(2004)은 미국의 한인 대학원생들의 정보추구행태 조사를 위해 8명의 학생과 그 배우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그들의 삶은 사회 주변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커다란 스트레스와 반복되는 일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와 같이 그들이 주류사회에 동화되지 못하는 원인은 언어장벽과 한인교회의 강력한 결속력으로 나타났다. 즉, 능숙하지 못한 영어로 인해 미국사회와 원활히 상호작용하지 못하였고, 그들의 일상생활을 위한 정보는 미국인이 아닌 한인 학생이나 한인교회 등 한인 커뮤니티에 의존하고 있었고, 한인교회는 유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이들과 강력한 인종적 결속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사회로의 동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제환 등은 재일한인들의 일상을 정보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일련의 연구들을 수행하였다. 본격적 연구에 앞서 이제환, 이연옥, 장덕현(2004)은 소수민족과 소외계층으로 대표되는 소외집단에 대한 기존 정보행태 연구에서 나타난 방법론적 특성을 연구의 주요 질의와 변수, 자료수집과 자료분석 등 연구방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어 이제환, 장덕현, 이연옥(2004)

과 이제환(2005), 이제환, 노지현(2005)은 재일한인의 정보현상에 대한 연구를 위해 먼저 오사카 등 관서지역의 한인들을 대상으로, 이어서 동경지역의 한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구조화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그리고 재일한인사회의 전반적인 정보활동에 대해 방문과 관찰을 토대로 진행되었다. 연구결과 재일한인의 일상적 고민의 유형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건강/안전, 취업/사업, 노후/복지, 육아/교육 등에 대한 정보요구가 높았는데, 관서지역의 경우, 건강과 안전문제를, 동경지역에서는 취업과 사업문제가 각각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일상 고민에 대처하기 위해 그들은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보다 주변의 도움보다는 혼자서 해결하는 방법과 같이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고민해결을 위한 정보추구과정에서도 대체적으로 전문가의 조언보다는 가족이나 친구 등 비공식 정보원에 대한 의존이 높게 나타났다. 정보원의 선호도 측면에서는 동경지역이 공식적 정보원을, 관서지역은 비공식정보원을 꼽았으며, 선호하는 정보매체에 대해서는 관서지역이 신문과 TV 등 전통 매체를, 동경지역이 인터넷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 올드커머(old comer) 중심의 관서지역과 뉴커머(new comer) 중심의 동경지역간 정보행태적 차이가 존재함을 밝혔다.

끝으로 새로운 사회에 정착하고 있는 난민들의 정보요구와 정보추구행태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는데, Raddon과 Smith(1998)는 영국에 거주하는 난민그룹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정보요구를 파악하고, 정보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난민들의 주요 정보요구는 법적 권리, 주

택, 복지, 건강, 교육/훈련, 업무/고용, 영어문제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난민들이 이용가능한 유용한 정보는 많이 있지만, 공적 영역간, 자원봉사 영역간, 그리고 상호간의 협력 부족, 정보원에 대한 서지정보 관련 문제, 번역문제 등을 포함하여 정보생산과 배포에 관한 정책의 결여로 인해 난민들이 그 정보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난민들의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은 우연성에 의존하게 되고 개인적 네트워크와 정보원에 대한 지식 여부에 의존하게 된다고 밝혔다.

Olden(1999)은 오랜 구술(口述)문화 전통을 가진 소말리아 난민들이 영국에 들어온 후 달라진 정보환경에서 어떠한 정보추구행태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런던 거주 소말리아 난민 25명을 대상으로 민족기술지 접근법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소말리아인들은 교육과 취업 등 생활 전반에서 언어의 장벽으로 인한 정보습득과 이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을 밝혔다. 그리고 그들은 구두문화의 영향으로 전화로 폭넓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으며, 위성 라디오방송으로 BBC Somali Service를 듣고 있었으며, 진학과 취업에 관한 정보 역시 주로 구두언어로 전달되고 있었다. 그들은 일상의 문제 해결을 위해 도서관을 이용하지는 않았고, 영어사용이 원활한 지역사회 봉사자들을 통해 도움을 얻고 있었다. 대중매체와 관련해 소말리아어 출판물들은 거의 없으며, 이들이 읽기를 싫어하는 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신문구독은 선호되지 않았음을 밝혔다.

이상에서 살펴본 여러 소수민족의 정보요구와 정보추구행태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

인 특징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수 민족들의 정보요구에 있어서는 연구대상과 조사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취업이나 사업과 관련된 요구, 자녀 육아 및 교육에 대한 요구, 건강이나 노후, 복지에 대한 요구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정보요구 등이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둘째, 정보요구 충족을 위한 정보추구 과정에서는 주로 가족, 친구, 이웃 등의 비공식적인 정보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체적으로 관공서나 도서관과 같은 공식적인 기관정보원의 활용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매체정보원에 있어서도 정착사회의 주 언어가 아닌 모국어로 만들어진 매체들에 한정되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수민족들이 새로운 사회에서 정보에 접근하여 활용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빈곤, 문화적 차이, 소외감 인종 차별, 소극성 등 여러 가지 장애요소가 존재하였지만, 가장 핵심적인 장애요소는 바로 정

착사회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들이 필요한 정보의 입수와 활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북한이탈주민의 정보요구

2.1 정보요구의 전반적 경향

먼저 설문조사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생활에서의 정보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남한에 살면서 정보가 가장 많이 필요했던 3가지 영역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생활에서 정보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분야는 아래의 <표 2>와 같이, 취업과 사업분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복지혜택과 노후대책에 대한 정보와 건강과 안전에 대한 정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외에

<표 2> 북한이탈주민들의 정보요구 유형과 빈도

순위	항목	빈도	유효비율(복수응답)	유효비율
1	취업/사업	74	83.1%	27.8%
2	복지혜택/노후대책	37	41.6%	13.9%
3	건강/안전	35	39.3%	13.2%
4	육아/교육	22	24.7%	8.3%
5	북한소식	19	21.3%	7.1%
6	언어/역량	18	20.2%	6.8%
7	남한사람과의 관계	17	19.1%	6.4%
8	호적, 이혼 등 법적 문제	16	18.0%	6.0%
9	종교/신앙	10	11.2%	3.8%
10	주거/주택	8	9.0%	3.0%
11	출세/승진	5	5.6%	1.9%
12	연애/결혼	4	4.5%	1.5%
13	여가/취미	1	1.1%	0.4%
14	기타	0	0.0%	0.0%
	합계	266		100%

육아/교육, 북한소식, 언어/역양 남한사람들과의 관계, 호적, 이혼 등과 관련된 법적 문제, 종교/신앙 등의 순으로 정보요구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주택, 출세/승진, 연애/결혼, 여가/취미에 대한 정보요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정보요구의 분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처해 있는 현실적 상황과 깊은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그들이 남한에서 현재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취업/사업분야와 정착금과 각종 장려금 등 경제관련 대책과 관계 깊은 복지 혜택과 노후대책이 1, 2위의 순위로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낸 점에서 잘 나타난다. 그리고 건강과 안전이 세 번째로 많은 빈도를 보인 것은 북한 거주기간 동안의 빈곤과 배고픔, 그리고 탈북과정과 제3국에서의 고되고 긴장된 생활로 인한 이들의 육체적, 정신적 상처가 매우 깊은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 반면, 여가/취미나 출세/승진에 대한 정보요구는 그들의 현재 상태가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요구들은 자신들과 상관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낮은 빈도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낮은 빈도를 보인 주거/주택의 경우는 이미 그들이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주택문제에 대한 정보가 그다지 시급하지 않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끝으로 연애/결혼 역시 상당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이미 다른 북한이탈주민들과 결혼 또는 동거와 같은 방식으로 함께 거주하고 있는 현실을 반

영하여 낮은 빈도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2.2 정보요구의 구체적 내용

2.2.1 취업/사업

이 연구의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에서 취업과 사업에 관련된 정보는 월등히 높은 비율로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한에 들어온 이후에도 여전히 경제적 곤궁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 처지에서 기인하였다. 2005년 기준으로 그들이 남한 입국시 받게 되는 정착지원금은 1인 기준으로 당장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임대주택보증금 1천만원 외에 초기정착금 300만원, 그리고 정착 후 2년 동안 한달 평균 30만원 정도의 분할 지급금(총 700만원으로, 분기별로 80-90만원 정도)을 받게 된다. 그리고 취업을 하기 전 1년 동안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1인 가구 기준 35만 8천원의 생계급여를 지급받는다. 많은 경우에 초기 정착금은 거주를 위해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과 입국 브로커 비용으로 대부분 들어가는 데, 브로커 비용은 작게는 1인당 200-300만원 내외에서 많게는 500만원 내외, 심지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도 있다.⁷⁾ 따라서 브로커 비용과 TV, 냉장고, 가재도구 등의 구입을 위한 초기 정착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수중에 남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볼 수 있다.

정착금이 들어오면 브로커 비용을 주고, 물건을 사고 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⁸⁾

7) “법률분쟁에 탈북자 속탄다.” 내일신문 2005년 6월 10일 “탈북여성들 브로커에 진 빚 때문에...” SBS 8시 뉴스 보도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55&article_id=000066328§ion_id=102&menu_id=102>. [Cited 2006.3.30].

거주지역으로 와서 초기 정착금을 다 써버린 후 무직상태에 있다고 했을 때 그들은 1-2년간 한달 평균 60여 만원 정도를 정부로부터 받게 되는데, 이 금액도 식비와 관리비, 통신비, 잡비 등으로 쓰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린다. 이러한 빈곤한 처지를 극복하기 위해 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북한에서의 배운 지식과 기술은 남한에서 거의 써먹을 수 없는 것이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의 곱지 않은 시선과 체제와 언어가 다른데서 오는 문화적 차이와 이질감, 그리고 취업정보의 부족 등으로 인해 그들의 취업은 쉽지 않다.

취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취업하기 어렵다. 이는 사람이 없어서 취업하기 힘들다. 벼룩시장 같은 것을 보고 전화를 하는데, 조건을 하도 많이 따져서 별로 좋지 않다. 어떤 사람은 전화 목소리를 듣고 탈북자라서 안 쓴다고 한다.⁹⁾

2.2.2 복지혜택/노후대책

복지혜택과 노후대책에 대한 정보요구는 그들의 기초생활수급 혜택과 정착지원 제도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들이 복지혜택 등에 대해 많은 정보요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취업/사업에 관한 정보요구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경제적 빈곤과 크게 관련되어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무직 상태에서 정부에서 지급하는 기초생계비에 의존하여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취업을 하고 있더라도 저임금이므로 생계비의 지원이 없

으면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

취업을 하기 힘들다. 이는 사람도 없고 교회에 부탁을 해도 잘 안되고, 예기도 어리니까 취업이 안 된다. 남편이라도 직업이 있어야 하는데, 잘 구해지지 않으니까 하루하루 생계비로 살고 있다... 중략... 몸이 자주 아파서 병원에 살다시피 하는데, 만약 취업이 되면 생계비도 만나오고 의료혜택도 없어지니까 병원비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온다. 그리고 관리비 혜택도 없어져 관리비도 많이 오르고, 일을 하기 위해 애를 맡겨도 택아비용도 많아진다. 한 달에 백만원 남짓 벌어야 이 돈 다 내고 나면 아무 것도 없다. 차라리 지금처럼 생계비나 받으면서 사는 것이 더 낫다.¹⁰⁾

이와 같이 그들에게 있어 생계급여와 기타 의료, 교육 등에 관련된 복지혜택은 남한생활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생계유지 대책이다. 따라서 이런 목숨 줄과 같은 생계급여가 중단되었을 때 그들은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상실감을 가지게 된다.

회사를 한달 정도 다녔는데, 그만두게 하는 분위기여서 나오게 되었는데, 갑자기 취업이 되었다는 이유로 생계비가 중단돼버렸다. 그 때는 첫 애를 막 낳은 상태여서 돈도 많이 들어갈 때인데, 생계비를 중단하면 우리보고 죽으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따지러가서 대판 싸웠다. 그 때는 정말 살고 싶은

8) 북한이탈주민 M씨와의 면담, 2006년 3월 1일, M씨의 임대아파트.
 9) 북한이탈주민 P씨와의 면담, 2006년 2월 9일, 부산대 앞 한 커피숍.
 10) 북한이탈주민 L씨와의 면담, 2006년 3월 1일, L씨의 임대아파트.

생각이 없었다.¹¹⁾

이상에서 본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어려운 경제적 빈곤 상황으로 인해, 생계급여를 비롯한 각종 복지혜택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생계급여 등을 유지하기 위해 주변사람들로부터 다양한 사례와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2.3 건강/안전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요구는 사실상 신변안전 보다는 건강과 관련된 정보요구라고 봐야 하는데, 이는 그들 대부분이 북한에서 보통 사람들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신변안전을 걱정하지 않는 것에서 잘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북한에서 각종 기상재해로 인한 식량난을 겪어왔고, 북한의 근로조건과 의료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안전장비나 의약품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크고 작은 신체적 질병을 가지고 있다. 특히 탈북과정과 중국과 같은 제3국 체류과정에서 긴장의 끈을 풀지 못하는 생활이 이어지면서 여러 질병을 얻거나 악화되고, 또한 이 과정에서 가족과의 이별이나 가족의 사망과 같은 충격적 사건을 경험하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적 상처를 입기도 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그들이 남한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수의 북한이탈주민이 몸집도 상당히 왜소하며 건강도 그다지 좋지 않은 실정이다.

북한에서의 생활조건이 좋지 않고, 아무 공장

이나 이런 곳에 안전시설이 되지 않아 사고도 많은 편이다. 탈북해서 중국 같은 곳에 있을 때는 긴장을 해서 그런지 아픈지 잘 모른다. 일하면서도 (공안들이 올까봐) 각성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다가 남한에 오면 긴장이 많이 풀리니까 아픈 곳이 아주 많이 나타난다. 나도 허리 디스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¹²⁾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의 대부분이 북한과 제3국 체류과정에서 좋지 않은 주거환경과 노동환경, 그리고 극도의 심리적 긴장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매우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요구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나쁜 건강상태는 그들의 취업에도 영향을 미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어렵게 만들고, 결국은 생계급여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으로 파악된다.

2.2.4 육아/교육

육아와 교육에 대한 정보요구는 최근 북한이탈주민들이 대량입국하면서 자녀를 동반하여 입국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남한 입국 이후에 같은 처지의 북한이탈주민과 결혼 또는 동거를 거치면서 자녀를 출산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자녀 육아나 교육에 대한 정보요구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애가 학급 애들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왕따도 당하고 정착도 잘 못하고 애로사항이 많
다.¹³⁾

11) 북한이탈주민 J씨와의 면담, 2006년 3월 7일, J씨의 가게.

12) 북한이탈주민 D씨와의 면담, 2006년 3월 11일, D씨의 임대아파트.

13) 북한이탈주민 N씨와의 면담, 2006년 3월 3일, N씨의 가게.

이처럼, 부모와 동반 입국한 청소년들의 학교 부적응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초·중·고교 취학 대상자인 탈북 어린이와 청소년 987명 가운데 2005년 8월 현재 재학생은 432명으로 43.7%인 것으로 나타났는데,¹⁴⁾ 이러한 교육과 육아에 대한 고민은 다시 그들의 경제적 빈곤과 관련되어 있었다. 즉, 먹고 살기 위해 부모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느라 자녀 공부나 고민에 대해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자녀 문제에 관해 학교 선생님을 찾아가거나 주변 학부모들로부터 관련된 정보를 얻을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다. 그렇다고 학교에서도 전교에서 몇 명 되지 않는 탈북 청소년에 대해 그들의 부모와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웃의 애기엄마들과 육아에 대한 것도 물어보고 싶어도 말도 잘 알아듣지 못하고, 특히 사투리로 인해 의사소통이 힘든 실정이다. 또한 그들이 사는 지역은 영세민 거주지역이라 주변에 탁아를 할 수 있는 시설도 많지 않고 그 비용도 상당히 부담이 되어 그들의 고민이 매우 크다. 이처럼 그들은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교육, 육아와 관련된 정보를 거의 얻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겠다.

먹고 살려고 아침 일찍 나와 저녁 10시쯤 집에 들어가면, 작은 애는 저녁도 안 먹고 TV 보다가 쓰러져 자기 일쑤다. 집에서 공부도 가르쳐야 되는데, 일을 하다보니 하루에 밥 한끼 먹는 것이 전부다. 자녀교육이라고 해봐야 없고 공부 안하

면 매를 드는 것 밖에 없다.¹⁵⁾

2.2.5 북한소식

그들이 북한소식에 대해 궁금증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정치, 사상적 이유에서건 경제적 이유에서건 자신이 살던 땅을 떠난 사람들에게 고향이 그림고 고향소식이 궁금한 것은 인지상정이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도 비록 그 땅에서 살기가 어려워 떠나왔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있어 북한에 대한 정보는 가족과 친구들이 남아있는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일을 하다보니, TV를 자주 볼 시간이 없다. 하지만, 남북의 창이나 뉴스 같은 것은 자주 본다. 인터넷으로 북한관련 사이트에도 들어간다.¹⁶⁾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고된 처지에서 그들의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향수로 인해 그들은 각종 매체를 통해 고향소식을 알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6 언어/역양

언어는 정보를 수집하는데 있어 중차대한 역할을 한다. 많은 이민자나 난민들이 언어문제로 인해 새로운 사회의 정착과정에서 혼란을 겪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는데, 북한이탈주민 역시 언어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로 인해 큰

14) “‘탈북 청소년’ 누가 이들의 손을 잡아 줄 것인가”, 동아일보 2006년 1월 31일.

15) 북한이탈주민 N씨의 면담, 2006년 3월 3일, N씨의 가게.

16) 북한이탈주민 J씨의 면담, 2006년 3월 7일, J씨의 가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비록 남북한이 같은 언어를 쓰지만, 50년이 넘게 이질화되어 온 어휘들과 억양으로 인해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생활 전반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전화를 해 보지만, 말투를 듣고 바로 어디에서 왔냐고 묻는다. 말투 때문에 취직이 안 된다. 어디를 가나 우리들은 구별이 된다. 억양이 달라서 남한사람들은 우리말을 못 알아듣겠다고 한다. 이제 한 3년 되니까 시장에 가서 물건 값을 물어보는 것이나 알아듣는 것은 되는데, 다른 이야기는 어렵다. 그러니 이웃의 남한사람들과도 대화가 어렵다보니, 우리 탈북자들끼리 이야기하게 된다.¹⁷⁾

이와 같이 이웃 남한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 형성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수집에서 언어 문제로 인해 장벽에 부딪히게 되고,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과 직업훈련을 받는 과정에서도 문제상황에 빠진다. 뿐만 아니라 다행히 취직을 하게 되었더라도 공장이나 사무실에서의 직장 생활 역시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고용주 입장에서 이와 같은 언어소통 문제는 생산성 저하와 관련된 문제로 연결될 수 있어,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남한에서 쓰는 단어를 잘 모르겠다. 여기 말은 영어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 특히 작업장에서 쓰는 기계나 장비, 제품 이름을 모르겠다. 한번 들어선 모르고 여러 번 해야 된다.¹⁸⁾

그들은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간단한 의사소통은 문제가 없지만, 남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래어, 직장에서 사용하는 전문적인 용어, 그리고 지역 특유의 경상도 사투리의 사용에서 어려움을 느끼며, 자신들의 북한식 억양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언어소통에서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공식적인 정보원보다는 소통에 장애가 없는 북한이탈주민들끼리만 폐쇄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으로 이끄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2.2.7 기타 정보요구

앞에서 언급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주요 정보요구 외에도 남한사람들과의 관계, 이혼이나 호적과 관련한 법적 문제에 대한 정보요구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담과정에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 중 일부는 자신들에 대해 남한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차별과 멸시의 시선을 보내는 것에 크게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면담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설움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

취직을 하면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다가 나중에는 깔보고 벌레같이 본다. 육체적으로 시달리는 것은 없는데 왕따가 심해서 정말 힘이 든다. 휴식시간에도 사람들이 피하고 고참들이 말도 안하고 일도 안 가르쳐줘 뭘 할지 몰라 어리둥절하다 보면, 윗사람들의 눈 밖에 나게 된다. 북한에서 온 사람이 게으름 피운다고 해서 찢리거나 스스로 그만두게 한다. 북한에서 엄청나게 고생

17) 북한이탈주민 M씨와의 면담, 2006년 3월 1일, M씨의 임대아파트.

18) 북한이탈주민 K씨와의 면담, 2006년 2월 8일, K씨의 임대아파트.

하다 왔기에 회사에 들어가 이 악물고 사람들 비위도 잘 맞추고 최선을 다했지만 오히려 이용하고 낮게 보려고 한다. 이제 이런 것이 자꾸 쌓이다 보니, 이제 악 밖에 안 남았다. 탈북자들을 이렇게 냉대하면 결국엔 사고가 터질 수 밖에 없다.¹⁹⁾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은 호적, 이혼, 소송 등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한 정보요구를 가지고 있었다. 북한이탈주민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파악할 수 있었던 법과 관련된 정보요구는 다양하였는데, 가령, 재결합이 사실상 불가능한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과 이혼을 통한 남한에서 새로이 만난 북한이탈주민과의 합법적 결혼, 그리고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호적과 성(姓)과 관련된 내용, 가정폭력 관련 내용 등이 비교적 많았다.

북한에서 결혼한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이혼이 되지 않아 새 출발을 못하고 있다. 안정된 생활을 하려면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 주위에 이런 사람이 많은데, 소송하는 것을 몰라 못하고 있다.²⁰⁾

법적 문제에 관한 또 다른 정보요구로는 남한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무지와 정보부족으로 인해 취업이나 가게운영 등과 관련해 주변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요구를 자주 들을 수 있었다.

남한에서 언니처럼 믿고 따르던 사람에게 사

기를 당했다. 가게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잘 모르니까, 옆에서 자기가 다 도와준다고 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권리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가게에 권리금을 줘야 한다며 돈을 가져가 중간에서 빼먹은 것이었다. 그리고 자기가 승진을 위해 잠시 쓸 돈이 필요하다고 천만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모두 모아 줬는데,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한다. 믿었던 사람한테 당하니까 치가 떨린다.²¹⁾

한편, 이상의 정보요구들과 달리, 종교/신앙, 주택/주거, 출세/승진, 연애/결혼, 여가/취미 등과 관련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비교적 빈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종교 관련 정보요구는 매주 교회를 통한 예배와 성경책을 통해 종교와 신앙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기가 비교적 수월하여 이미 이에 대한 정보요구가 상당부분 충족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주택과 주거에 대한 정보요구도 북한이탈주민 대부분이 지역에 정착하면서 13평 내외의 영구임대 아파트를 배정받아 살기 때문에 이사나 임대료 등에 관련하여 크게 정보요구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출세와 승진 그리고 취미와 여가에 관련된 정보요구가 적은 것은 그들의 현재 처지가 가장 기초적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에, 사회적 출세나 취미, 여가 등 다른 것을 둘러볼 수 있는 정신적,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그들이 대부분 무직이거나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승진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어서 낮게 나온

19) 북한이탈주민 J씨와의 면담, 2006년 3월 7일, J씨의 가게.

20) 북한이탈주민 D씨와의 면담, 2006년 3월 11일, D씨의 임대아파트.

21) 북한이탈주민 E씨와의 면담, 2006년 2월 20일, E씨의 가게.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연애와 결혼에 대한 정보요구가 적은 나타난 이유는 상당수의 북한 이탈주민들이 부부가 입국하였거나 남한 입국 이후 북한이탈주민과 결혼 또는 동거 중인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북한이탈주민의 정보행태

3.1 정보에 대한 인식과 입수태도

먼저 평소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설문조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들은 매우 그렇다 31%, 조금 그렇다 59%, 그렇지 않다 10%로 답하였다. 그리고 남한사람과 비교할 때 일상생활 관련 정보를 얻는데 있어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남한사람이 잘 얻는다는 대답이 68%였고, 북한이탈주민이 잘 얻는다는 대답은 22%, 차이 없다는 대답은 10%였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적응에 있어서 정보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남한사람들과 비교할 때 정보를 얻는데 있어 자신들의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어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정보를 얻는데 있어 어려움은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 보기 중에서 2개를 선택해 달라는 질문에는 “어디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지를 모른다”는 응답이 25.0%로 가장 많았으며 “주변에 정보를 얻을 만한 사람이나 기관이 없다”는 응답이 19.2%로 뒤를 이었다. 그 외에 “정보를 얻기 위한 기

술과 능력이 부족하다” 14.7%, “언어소통이 어렵다” 14.1%, “북한이탈주민의 노력과 태도가 소극적이다” 10.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보를 얻기 위한 ‘비용’이 든다거나 정보를 찾을 ‘시간’이 없어서라는 응답은 8.3%, 5.8%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정보를 구하는데 돈은 드는 것은 아닌데 정보를 알 수 있는 길을 잘 모른다. 그런 길을 알기가 힘들다. 북한에서 왔으니까 모를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친구나 아는 사람이 많으면 알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까.²²⁾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신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보원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런 정보원들은 어떻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그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 당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들은 이어 주변에 남한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기관이 없는 것이 어려움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목하였다. 2005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해운대 지역이나 사상구, 북구 지역에는 복지관과 같이 지역 밀착형 정보제공기관이 없어 그들이 생활에서 곤란한 상황에 접했을 때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상당한 애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역 전체의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정착지원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의 역할도 아직은 미미하기 때문에 이 기관이나 단체들을 통해 정보를 얻기가 힘든 것으

22) 북한이탈주민 P씨와의 면담, 2006년 2월 9일, 부산대학교 앞 한 커피숍.

로 파악된다. 한편 주변에 적합한 정보원이 부재하다고 그들은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정보원은 존재하고 있으나, 정보원인 기관들의 소극적인 홍보 등으로 인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정보원의 소재여부를 알지 못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에서 체화된 국가 의존적인 행태와 남한입국 후 가지게 되는 심리적 위축 등이 작용한 소극적 정보행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어떻게 대처하는 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절반 정도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대답하였으나, 어느 정도 노력하지만 잘 구해지지 않으면 그냥 넘어간다는 사람이 29%, 알고 싶은 것이 있어도 그냥 참고 넘어간다는 사람이 22%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요구를 정보추구와 정보활용 과정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중간에 개인적 또는 정보환경적 장벽을 만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일상생활의 정보원과 선호도

3.2.1 선호하는 정보원과 선호이유

설문조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남한 생활에서 필요한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는지 3가지만 선택해달라고 했을 때, 아래의 <표 3>과 같이 조사대상자의 89명 중 62.9%가 “같은 처지인 북한이탈주민 가족, 친구, 주변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얻는다”고 답을 하여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경향은 북한이탈주민들

<표 3> 남한생활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는 정보원

번호	항목	빈도	유효비율(복수응답)	유효비율
1	북한이탈주민 가족/친구/주변사람	56	62.9%	21.7%
2	남한사람 가족/친구/주변사람	29	32.6%	11.2%
3	텔레비전/라디오	26	29.2%	10.1%
4	신문	23	25.8%	8.9%
5	교회/사찰 등 종교단체	22	24.7%	8.5%
6	YWCA/복지관 등 민간단체	19	21.3%	7.4%
7	관계기관(동사무소/구청/고용안정센터)	14	15.7%	5.4%
8	생활정보지	14	15.7%	5.4%
9	인터넷	14	15.7%	5.4%
10	신변보호 경찰	8	9.0%	3.1%
11	이북 5도청	4	4.5%	1.6%
12	정착도우미	3	3.4%	1.2%
13	북한이탈주민후원회	3	3.4%	1.2%
14	직업소개소	2	2.2%	0.8%
15	승의동지회 등 북한이탈주민 단체	1	1.1%	0.4%
16	책/잡지	0	0.0%	0.0%
17	기타	20	22.5%	7.8%
합계		258		100%

의 인터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아무래도 탈북자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말도 알아듣기 좋고, 남한에서 서로 외롭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씩 모여서 술 한잔씩 하면서 한 주간에 있었던 일도 이야기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기도 한다.²³⁾

또한 그들을 지원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담당자들과의 인터뷰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잘 드러나고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실질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들끼리 가장 활발하게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면서 북한이탈주민간의 폐쇄적인 정보교환 경향을 언급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남한사람 가족, 친구, 주변사람 32.6%, TV/라디오 29.2%, 신문 25.8%, 교회 등 종교단체 24.7%, YWCA/복지관 등 민간단체 20.2%의 순으로 남한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정착에 있어, 동사무소/구청/고용안정센터(15.7%)와 같은 거주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과 신변보호담당관인 경찰(9.0%) 등의 정보제공 기능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 최근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 정착지원을 위해 역점을 두고 있는 정착도우미(3.4%)와 북한이탈주민후원회(3.4%), 북한이탈주민 단체들(1.1%)은 정착에 필요한 정보제공에 있어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자인 정착도우미의 경우, 2005년 입국자들부터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보를 얻는 비율이 낮을 수 있지만, 실제 2005년도 입국자들 중에서 남한생활에 관한 정보원으로 정착도우미를 선택한 경우는 한 명도 없었다. 오히려 2002년과 2004년에 입국한 사람들 중에서 3건이 있었는데, 아마 이것은 그들이 지역 복지관의 자원봉사자들을 정착도우미로 오해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항목에서 예시된 남한생활에 관련된 정보원들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첫째, 주변의 북한이탈주민이나 남한사람과 같은 대인(對人) 정보원, 둘째, 신문, TV, 라디오, 도서, 잡지, 생활정보지, 인터넷과 같은 매체 정보원 셋째 거주지·취업·신변 등 3대 보호담당관, 이북5도청,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정착도우미와 같은 공공기관 정보원, 넷째, 복지관, YWCA, 교회, 북한이탈주민 자생단체 등의 민간/종교단체 정보원, 다섯째, 직업소개소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영리업체 정보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유형별 분류에 근거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정보원 유형별 이용 정도를 살펴보면, 전체 중에서 대인 정보원이 32.9%, 매체 정보원이 29.8%, 공공기관 정보원이 12.5%, 민간/종교단체 정보원이 16.3%, 민간영리업체 정보원이 0.8%를 차지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생활에 관련된 정보를 대인 정보원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매체 정보원도 이에 버금갈 정도로 의존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정보원과 민간단체 정보원의 이용비율은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특히 국가적으로 그들에게 남한정착 관련 정보제공의 의무를 부여받은 공공기관 정

23) 북한이탈주민 O씨와의 면담, 2006년 3월 3일, O씨의 가계.

보원은 민간단체 정보원보다 낮은 비율로 북한 이탈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었다. 즉,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정착에 관련된 정보를 가장 기본적인 정부기관은 물론이고, 민간단체로부터도 얻고 있지 못하며, 주로 자기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주변의 북한이탈주민이나 남한사람에게 알아 보거나 매체를 이용해서 정보를 얻고 있는 실정이다.

3.2.2 대중 정보매체의 이용행태

여기에서는 부산거주 북한이탈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대중 정보매체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체적인 이용행태와 더불어 신문, 텔레비전 인터넷 등 개별 매체의 이용행태에 대해서도 살펴 보았다. 먼저, 남한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대중적 정보매체가 무엇인지 2개를 선택해 달라는 질문에 그들은 텔레비전(32.2%)과 신문(26.9%)이 가장 많은 정보를 주고 있는 매체라고 밝혔다. 그 다음으로는 인터넷(16.4%)과 생활정보지(13.5%)였으며, 라디오(3.5%)와 잡지(2.9%), 도서(1.2%) 등은 거의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가장 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텔레비전에 대해 그들은 “텔레비전은 자주 본다”, “일하느라 바빠서 자주 볼 시간은 없지만 매일 뉴스같은 것은 본다.” 등과 거의 매일 이용하는 것으로 밝혔다. 이런 경향은 설문조사에 잘 나타났는데, 응답자의 절대 다수(94.3%)가 매일 텔레

비전을 보며, 주 3-4회 보는 사람도 3.4%인 반면, 거의 보지 않는 경우는 2.3%에 불과해 텔레비전은 그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매체로 자리잡고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이 매체들 중 텔레비전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는 사실은 빈곤층의 정보행태 관련 연구들에서 빈곤층은 텔레비전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밝힌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있었다.²⁴⁾

하지만, 면담과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북한 이탈주민의 텔레비전 이용행태는 일반적으로 빈곤층이 현실도피와 시간소모를 위해 주로 오락용으로 텔레비전을 이용한다는 일반적인 연구들과는 다소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주로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는지 조사한 결과, 그들은 뉴스(29.1%)를 단연 많이 보고 있고 그 다음으로 드라마(19.2%)와 남북의 창, 통일전망대 등과 같은 북한/통일 관련 프로그램(17.6%)을 압도적으로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스포츠(6.5%), 영화(6.1%), 종교(5.4%) 프로그램도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었으나 오락(1.9%), 교육(1.9%), 홈쇼핑/광고(0.8), 교양(0.4) 등의 프로그램은 거의 시청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을 좀 더 분석하기 위해 “어떤 목적으로 텔레비전을 보는가”라는 질문을 한 결과, ‘남한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텔레비전을 본다는 응답이 27.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북한소식을 이해하기 위해’(17.0%), ‘일상생활의 정보를 얻기 위해’(16.6%), ‘언어를 배우기 위해’(8.9%)

24) Chatman은 빈곤층의 정보행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대학교 청소부5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체 응답자의 94%(복수응답)가 대중매체 중에서 텔레비전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답하여 라디오(81%), 신문(81%)보다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Chatman 1987) Chatman은 이 외에도 여러 논문에서 빈곤층의 대중 매체 이용은 주로 텔레비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혔다.

순으로 텔레비전을 본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여유시간활용(8.9%), 기분전환/스트레스 해소(8.1%), 취업/승진/출세(4.9%), 교양(4.5%), 업무상(3.2%) 등과 같은 대답은 상대적으로 많이 낮았다. 즉, 그들은 흥미나 오락을 목적으로 텔레비전을 시청한다기보다는 텔레비전을 통해 남한사회를 이해하고 일상생활의 정보를 수집하며, 북한소식을 얻고 언어습득을 위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들도 남한사회 이해와 언어습득이란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독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두 번째로 높은 이용빈도를 보인 신문 역시 북한이탈주민에게 남한생활의 주요한 정보원이었다.²⁵⁾ 남한사회에 대한 정보입수를 위해 북한이탈주민들은 신문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설문조사에서 얼마나 자주 신문을 보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거의 매일(37.8%) 또는 주 2-3회(47.3%) 정도로 비교적 자주 신문을 읽고 있다고 답하였고, 월 1-2회(13.5%) 나 거의 보지 않는다(1.4%)는 응답은 비교적 낮았다. 하지만, 그들이 신문을 보는 방법은 그들의 빈곤한 경제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었는데, 면담과정에서 “길바닥에 떨어진 신문이 있으면 보고 없으면 안 본다”, “별지 못하니까 지출을 줄이기 위해 인

터넷으로 신문을 보거나 병원대기실 신문도 이용한다.”와 같은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²⁶⁾

신문을 볼 때 주로 어떤 지면을 보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그들은 북한/통일(22.7%)에 대한 지면을 가장 많이 보고 있었으며, 이어서 취업(20.4%), 정치(15.6%), 경제(13.3%)의 순으로 자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고향인 북한소식에 대한 정보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정보요구를 신문의 북한소식을 통해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들은 남한의 정치에 대한 기사도 관심 있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경향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하루빨리 남북관계가 진전되어 두고 온 가족과 고향을 다시 보고 싶어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어 북한소식이나 남북관계, 정치관련 정보를 민감하게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북한사회가 기본적으로 정치나 사상을 중요시하게 취급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 북한에서의 성향이 남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외에 그들의 경제적 상황과 밀접히 관련 있는 취업과 경제 관련 기사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회(4.9%), 날씨(4.4%), 지역소식(4.0%), 광고(4.0%), 문화/예술/교양(3.6%), 연예/오락/TV편성표(3.1%), 스포츠(2.7%), 사설/칼럼(0.9%) 등은 매우 낮은 비

25) 북한이탈주민들과의 면담과정에서 “가게에서 신문을 1부 구독하고 있다. 신문은 남한사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신문을 보면 내가 모르는 것을 알 수 있다. 언어상으로도 그렇고,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그 때는 몰랐는데, 신문을 보면 아! 이 뜻이구나 하고 그 뜻을 알 수 있다. 신문을 보면 도움이 된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26) 설문조사에서도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지하철 등지에서 무료신문이나 남이 보다가 두고 간 신문을 이용하거나(44.2%), 인터넷 신문(18.2%)이나 직장에서 보는 신문(9.1%)을 이용하는 방법을 통해 비용이 들지 않도록 신문을 보고 있었고, 가정에서 정기구독을 하는 사람은 조사대상자의 20.8% 였다. 이는 남한사람들의 신문구독 방식이 가정에서의 정기구독이 41.0%, 직장 구독 신문이용이 31.3%, 인터넷을 통한 이용이 14.2%, 공공기관의 신문이용이 4.1% 정도임을 감안할 때 매우 낮은 것이라 하겠다(한국언론재단 2002)

율을 보이고 있었다.

세 번째로 높은 이용빈도를 보인 인터넷과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부산지역 북한이탈주민들의 컴퓨터와 인터넷의 활용측면을 동시에 살펴보았는데, 먼저, 컴퓨터 보유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는 컴퓨터를 보유한 경우가 64.7%, 보유하지 않는 경우가 35.3%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이 실시한 <2005년 새터민 정보화 실태조사>²⁷⁾에서 그들의 컴퓨터 보유와 미보유 비율이 각각 57.1%, 42.9%로 나타난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7.6% 이상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2005년 현재 컴퓨터 보유 비율인 78.5%와 비교했을 때는 13.8%의 격차를 보이고 있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5) 하지만 컴퓨터를 보유한 경우에도 일부의 컴퓨터 성능에는 많은 문제가 있어 이를 고려하면 컴퓨터 보유 수준에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²⁸⁾

누가 버리는 컴퓨터를 가지고 왔는데,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구석에 놔두고 있다.

중고컴퓨터를 옥션에서 샀는데,요즘은 고장 나서 못한다. 손을 보자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이어 컴퓨터 사용빈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매일 이용하는 사람이 32.5%였으며, 주 3-4회가 28.6%, 주 1회 이하가 6.5%로 나타난 반면,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32.5%였다. KADO의

2005년 실태조사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은 월 1회 이상 컴퓨터 이용이 55.0%, 비이용이 45.0%로 나타난 것과 비교했을 때, 부산지역 거주자들이 전국 북한이탈주민 평균보다 11.5% 높았으며, 2005년 남한사람 평균인 73.3%와 비교했을 때는 5.8% 낮았다.

다음으로 부산지역 북한이탈주민들이 어느 정도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매일 이용하는 사람이 34.7%, 주 3-4회가 26.7%, 주 1회 이하가 6.7%였으며,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32.0%였다. 2005년 KADO의 실태조사 결과, 전체 북한이탈주민 중 월 1회 인터넷 이용자 비율은 52.0%였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48.0%로 나타났다. 이와 비교했을 때 부산지역 거주자의 인터넷 이용 비율은 68.1%로 전체에 비해 약 16.1%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월 1회 이상 사용)인 71.9%와 비교했을 때는 약 3.8% 낮은 비율을 보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인터넷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에서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대답한 사람들에게 주로 어떤 용도로 이용하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북한 소식이나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정보를 찾기 위해서'가 18.0%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각종 자료검색(17.3%), 취업/사업 관련 정보검색(16.5%), 인터넷을 통한 신문/잡지 이용(14.4%) 등의 순으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반면, 메일/메신저/채팅(8.6%), 게임/영상/음악(7.9%) 등을 위한 이용은 비교적 낮

27) 이 실태조사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정보화 수준 및 정보화 교육 현황 분석을 통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는 2005년 8월 현재 국내의 7세 이상 남녀 700명과 하나원 신규 입소자 81명이 참여하였다.

28) 북한이탈주민들과의 면담에서 발췌.

있고, 인터넷 학습/교육(5.8%), 인터넷 금융, 쇼핑(5.8%), 카페/동호회 참여(3.6%), 홈페이지/블로그 관리(2.2%) 등의 용도로는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2.3 기관 정보원의 이용행태

현재 부산지역에는 거주지/취업/신변 등 3대 보호담당관을 비롯해, 지역의 복지관 YWCA 새터민 지원센터, 수영로 교회 정착도우미 등의 기관과 단체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 정착을 돕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남한생활에 있어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의 정보제공기능에 대한 만족 여부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72.9%는 관계기관과 민간단체의 정보제공에 대하여 조금 만족하였고,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2.4%,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4.7%로 나타나, 현재 부산지역 북한이탈주민들은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등의 정보제공 기능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주지 않고 있었는데,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은 공공기관과 단체

들이 제공해야 하는 남한정착에 필수적인 정보를 원활히 공급받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어서 조사대상자들에게 하나원 퇴소 이후 부산지역에서 남한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주는 기관은 어디인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부산 YWCA 새터민 지원센터가 가장 많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수영로 교회와 같은 종교단체, 신변보호 경찰, 고용안정센터, 동사무소/구청 순으로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거주 지역에 밀착해서 일상적 접근과 정보제공이 가능한 복지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실향민 관련 기관인 이북5도청이나 송의동지회 등의 새터민 단체, 정착도우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적십자사 등은 정보제공 기능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부산과 전국의 정착관련 기관과 단체에서 남한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발간하

〈표 4〉 남한생활에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항목	빈도	유효비율(복수응답)	유효비율
YWCA 새터민 지원센터	32	36.0%	16.7%
교회 등 종교단체	31	34.8%	16.1%
신변보호경찰	31	34.8%	16.1%
고용안정센터	22	24.7%	11.4%
동사무소, 구청	20	22.5%	10.4%
북한이탈주민후원회	16	18.0%	8.3%
복지관	14	15.7%	7.3%
이북5도청	7	7.9%	3.6%
송의동지회 등 새터민단체	3	3.4%	1.6%
적십자	2	2.2%	1.0%
기타	7	7.9%	3.6%
없다	7	7.9%	3.6%
합계	192		100%

고 있는 자료나 교육 프로그램 등을 얼마나 이용하였으며 이것이 남한생활에 유용하였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먼저, 발간물을 받은 기관은 어디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새터민 지원센터(18.7%), 북한이탈주민후원회(18.1%), 교회 등 종교단체(13.9%), 경찰(9.0%), 복지관(9.0%), 이북5도청(6.6%), 고용안정센터(6.0%), 동사무소/구청(4.8%), 새터민단체(3.0%), 적십자(1.2%) 등의 순으로 발간물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응답자의 14.6%가 발간물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하여 상당히 큰 비중을 보였다. 그리고 받아본 발간물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약 82%가 보통수준이라고 응답하였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도 11.3%였으나,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7.0%에 불과해 기관과 단체의 발간자료가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각종 프로그램과 강연, 교육 등을 받은 기관은 어디인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YWCA 새터민센터(27.5%), 경찰(17.6%), 복지관(11.8%), 교회 등 종교단체(9.2%), 고용안정센터(7.8%), 새터민단체(5.9%)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북한이탈후원회(3.9%)나 동사무소/구청(3.3%), 적십자사(3.3%), 이북5도청(2.6%)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은 상당히 적은 수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참여했던 각종 프로그램, 강연, 교육 등이 남한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어느 정도로 제공하는지는 질문에, 응답자의 12.5%만이 많은 정보를 제공했다고 응답한 반면, 86%는 보통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내었고,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1.4%로 나타나, 정착교육 프로그램

들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그다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2.4 대인정보원의 이용행태

대중 정보매체와 기관 정보원에 이어 부산지역 북한이탈주민들이 정보 입수를 위해 가장 크게 의존하고 있는 대인 정보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조사결과, 남한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주는 대표적인 대인 정보원은 북한이탈주민 가족(20.4%)인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최근 가족 동반입국의 경향과 남한 내에서 결혼 또는 동거의 형태로 가족을 이루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 다음으로는 북한이탈주민 친구(17.6%)와 이웃(12.7%)이었는데 이 역시 북한이탈주민들이 주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기 때문에 집 주변에서 쉽게 그들과 접촉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들 중 상당수가 수영로 교회에 등록하고 있어 매주 또는 월 1-2회 정도는 교회 예배나 심방, 구역모임 등의 형태로 접촉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많은 빈도를 보인 집단은 남한사람 친구(9.5%)와 직장동료(8.6%)로 나타났는데, 그들은 남한사회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직장생활 등에 필요한 전문적인 정보와 기술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업무적으로 매일 또는 자주 접촉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어서 하나원 동료(8.1%)와 동향의 북한이탈주민(7.7%)이었으며 같은 직장에 다니는 북한이탈주민(5.9%)과 남한사람 이웃(5.0%)과 가족(1.8%)은 빈도가 많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이탈주민 직장동료와 남한사람 가족

이 적게 나타나는 이유는 실제로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사례가 그렇게 많이 않으며, 또한 남한사람과 가족을 이루고 사는 경우도 매우 드물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임대아파트에서 오고 가면서 쉽게 마주칠 수 있는 남한사람 이웃이 정보원으로서는 매우 낮게 활용되고 있었는데, 이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남한사람들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관련 연구에 의하면 임대아파트의 남한사람들은 반공의식에 기초한 북한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태도, 못 사는 곳에서 온 사람에 대한 무시, 자신들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한 불만, 북한이탈주민들의 자본주의 무지에서 나오는 돈 씹씹이와 공동체 생활에서의 타인 배려 부족 등의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사람들의 부정적 인식이 더욱 강해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이우영 2004) 이 이외에도 북한이탈주민들의 이질적 언어와 남한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이웃의 남한사람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것도 이웃의 남한사람들을 정보원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위의 대인 정보원들을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사람으로 다시 나누어보면, 그들 중 72.4%가 같은 북한이탈주민들이고, 24.9%만이 남한사람임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대인 정보원이 전체적으로 남한사람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많은 것은 그들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은 같은 북한이탈주민들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4.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북한이탈주민의 정보요구와 정보행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북한이탈주민들은 취업과 사업에 대한 정보요구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복지혜택/노후대책, 건강/안전, 육아/교육, 북한소식, 언어/역양, 남한사람들과의 관계, 호적, 이혼 등과 관련된 법적 문제 등의 순으로 정보요구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정보요구의 분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처해 있는 경제적 빈곤이나 신체 허약 등과 같은 현실적 상황과 깊은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정보요구를 최근에 수행된 다른 소수민족 연구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매우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앞에서 살펴본 여러 연구에 나타난 소수민족의 정보요구는 대체적으로 취업/사업 관련 요구를 비롯해 육아/교육, 건강/복지, 그리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정보요구 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북한이탈주민들에게서도 이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 나타난 정보요구의 경향은 이제환 등이 수행한 재일한인의 정보요구와 정보추구에 대한 연구의 결과 중에서 부모세대부터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오사카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과는 달리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일본에 들어온 동경지역 거주 재일한인들이 보여주었던 일상적 고민과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 중 28.7%가 일상적 고민으로 취업/사업을 선택하여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고, 22.3%가 육아/교육을, 20.9%가 건강/안전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었다. 이처럼, 동경지역의 제일한인이거나 북한이탈주민 모두 경제적 문제로 인해 새로운 사회로 이주하게 되었으며,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자녀들의 육아와 교육을 고민해야 하는 점에서 유사한 처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부산지역 거주 북한이탈주민들의 정보행태를 바탕으로 하여 그들의 정보행태에서 드러나는 집단적 특성에 대해 정리해 보면 크게 세 가지 특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첫 번째로 그들은 같은 처지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끼리의 폐쇄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었다. 빈곤층의 대인 정보원 이용과 관련해 소외이론을 검토한 기존의 연구들은 빈곤층은 인적 네트워크가 거의 없으며, 그래서 남들에 대한 의심이 많고,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옆의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 대인 커뮤니케이션(interpersonal communication)을 맺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²⁹⁾ 이러한 사회 내 일반적 소외계층의 정보행태에 대한 연구결과와 달리, 앞의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제일한인, 미국 내 한인, 라틴 이민자, 영국 내 소말리아 난민 등을 비롯한 여러 소수민족 집단의 정보행태 연구에서는 그들이 주로 가족이나 친구, 자신의 커뮤니티에 대인정보원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해당 사회에서 나고 자란 일반적인 소외계층과 달리 소수민족 집단의 경우,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으며,

특히, 언어소통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주변의 자신과 동일한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정보를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남한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취업/사업에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대부분 자신과 같은 처지인 주변의 북한이탈주민들과 정보를 주고받는 폐쇄적 정보이용행태를 보이고 있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신들에게 친숙하고 언어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대인 정보원으로 동료집단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적의와 불신보다는 상호이해와 지지의 입장에서 매우 활발한 대인 채널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앞에서 살펴본 북한이탈주민들의 유용한 정보원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다는 사실이 뒷받침해 주고 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들은 3대 보호담당관, 정착도우미, 북한이탈주민 후원회 등과 같은 공공기관 정보원과 복지관, YWCA 등과 같은 기관 정보원에 대해 비교적 낮은 이용을 보이고 있었는데, 특히, 공공기관 정보원에 대한 이용이 더욱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등의 정보제공 기능이 낮음으로 인해 북한이탈주민들은 공공기관이 제공해야 하는 남한정착에 필수적인 정보가 원활히 공급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관 정보원들의 정보제공 기능이 미약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신들과

29) Chatman은 Glazer, Dervin 등의 연구와 자신의 수행한 연구를 종합하여, 빈곤자들간의 정보교환은 그들에게 거의 도움을 주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즉, 저소득 환경에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채널들이 거의 없으며, 서로 간의 대인적 불신, 적의와 자기 방어로 인해 대인채널은 정보제공자로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Chatman, Elfreda A. and Victoria EM Pendleton. 1995).

비슷한 처지에 있는 동료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패쇄적 정보이용이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이 주로 공식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정보원을 이용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먼저 공공기관과 민간영역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과 전달방법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입장과 처지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소통의 제한이나 심리적 위축 등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없는 상태에서 정보제공은 효과에 많은 제한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기관정보원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기관정보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정보세계의 외부에서 존재하는 정보원으로, 기본적으로 이용이 수월하지 않다. 게다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생활을 하면서 접해본 후에는 자신들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는 정보제공방식, 대체적으로 급박한 자신들의 삶의 문제에 직접적 도움이 되지 않는 점 등에 대해 실망하고 불만을 가지면서 기관정보원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기관정보원은 이용에 있어 대인정보원이나 매체정보원에 비해 번거롭고 접근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부산의 북한이탈주민 거주 지역 중 일부는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사회복지관 등이 없어 일상적으로 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그리고 YWCA, 부산종합사회복지관, 고용안정센터 등의 기관은 1시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며, 차비로 몇 천원을 써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빈곤에 처한 그들에게는 그런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이용해야 하는 의미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북한이탈주민들은 대중정보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Chatman(1991)은 빈곤층의 매체 이용은 주로 TV인데 TV는 일부 자기보호와 안전 등을 위해 날씨나 지방/국가 뉴스 등을 시청하는 것과 같은 실용적 가치를 위해 이용되기도 하지만, 주로 시간을 보내기 위해, 기분전환을 위해, 현실 도피를 위해 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은 현실도피나 시간소비를 위해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경향도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다양한 대중 매체를 남한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즉, TV와 신문은 보면서 남한사회, 남한 언어, 남한의 문화 등을 익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는 현실도피와 환상을 쫓게 하는 드라마를 보면서도 남한의 말을 배우고 가족 문화를 배우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⁰⁾ 그리고 일반적으로 빈곤층의 정보세계는 주로 자신들 주변에 관련된 일이나 제한되고 지엽적인 주제에만 관심을 가지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지만, 이 연구에서 조사된 바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신들의 세계와 관련된 정보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만, 한국사회의 정치, 경제, 통일 문제와 같은 비교적 거대 담론과 관련된 정보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즉, 그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

30) 북한이탈주민들과의 면담과정에서 “남한 뉴스나 드라마를 보면 여기 말을 배우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드라마를 보다보면 남한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 많다. 사랑에 대한 것이 많은데, 이런 것을 보면 앞으로 내가 여기서 어떻게 가정을 꾸려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을 수 있었다

는 신문기사들은 북한/통일, 취업, 정치, 경제 관련 기사들로 취업을 제외한 기사의 비중이 전체의 50%를 넘고 있었다. 빈곤층의 현실도피와 자극을 위해 이용되는 텔레비전의 경우도, 뉴스, 드라마, 북한/통일 관련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보고 있었는데, 드라마를 제외하고 뉴스와 북한/통일 프로그램이 45%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인터넷 역시, 음악/게임/동영상 등의 오락 위주의 이용은 매우 낮은 반면, 북한/북한이탈주민 정보검색, 일반적 자료검색, 취업관련 검색 등의 이용이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문제를 정보의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한 이 연구는 사회적 소수 집단의 정보추구행태와 정보빈곤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정책적 배려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된 다양한 후속연구들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람들과 같은 민족이고 같은 언어

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 소수민족집단과 차이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전혀 다른 체제에서 낯선 곳으로 옮겨 왔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 내 빈곤층과 다른 특징을 나타내므로 어느 한 쪽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소수집단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독특한 소수집단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부산지역과 일부 김해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논의하였던 결과가 전체 북한이탈주민들의 정보요구와 정보행태의 보편적 경향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설문조사 참여자의 절반 정도가 한 교회에 등록된 북한이탈주민들이었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는 이후 생산될 관련 연구들로 인해 점차 극복될 것이라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고경민 외. 2005. 『어디까지 왔나 무엇이 쟁점인가?: 국내외 탈북자를 위한 민간지원』. 서울: 우양.
- 부산 YWCA 새터민 지원센터. 2005. 『새터민의 남한사회 정착을 위한 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보고서: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부산: 동 센터.
- 북한이탈주민후원회. 2005. 『북한이탈주민 정착도우미 지침서』. 서울: 북한이탈주민후원회.
- 윤정옥. 1993.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역 한인의 정보 추구 행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5: 389-413.
- 이금순 외. 2004.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 이금순 외. 2003.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 이금순 외. 2005.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프

- 로그랩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 이우영. 2004. 『북한 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서울: 통일연구원.
- 이제환. 2005. 동경지역 한인의 정보행태에 관한 연구: 오사카지역 한인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1): 91-116.
- 이제환, 노지현. 2005. 재일한인사회의 정보활동에 관한 연구: 주요 한인단체와 매체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4): 45-75.
- 이제환, 이연옥, 장덕현. 2004. 소외집단에 대한 정보행태 연구의 방법론적 특성.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2): 273-295.
- 이제환, 장덕현, 이연옥. 2004. 재일한인의 일상적 정보요구와 정보추구: 관서지역 거주 한인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3): 273-295.
- 통일부. 2004. 『2004 통일교육기본지침서』 서울: 통일부.
- 통일부. 2005a.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실무편람』. 서울: 통일부.
- 통일부. 2005b. 『2005년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 통일부. 2006. 『2006년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 한국언론재단. 2002. 『2002 언론수용자의식조사』. 서울: 한국언론재단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5. 『2005 새터민 정보화 실태조사』. 서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Chatman, Elfreda A. 1987. "The information world of low-skilled workers." *LISR*, 9: 265-283.
- Chatman, Elfreda A. 1990. "Alienation theory: Application of a conceptual Framework to a study of information among janitors." *RQ*, 29(3): 355-368.
- Chatman, Elfreda A. and Victoria EM Pendleton. 1995. "Knowledge Gap, Information-Seeking and the Poor." *Reference Librarian*, nos. 49-50: 135-145.
- Fisher, Karen E. & et al. 2004. "Information behaviour of Migrant Hispanic Farm Workers and Their Families in the Pacific Northwest." *Information Research*, 10(1).[Cited 2005.5.25].
<<http://informationr.net/ir/10-1/paper199.html>>.
- Jeong, Wooseob. 2004. "Unbreakable ethnic bonds: Information-seeking behavior of Korean graduate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26: 384-400.
- Olden, Anthony. 1999. "Somali refugees in London: Oral culture in a western information environment." *Libri*, 49: 212-224.
- Raddon, Rosemary & Smith, Christine. 1998. "Information needs of refugee groups". *British Library Research and Innovation Report*, 71: 1-67.
- Rho, Jin-Ja. 2002. An investigation of the perceived information needs, information-seeking behaviors, and the use of community public libraries among first-generation adult Korean immigrants living in the Dallas, Texas, area. Ph.D.

diss., Texas Woman's University.
Su, Sherry Shiuan. 1993. An investigation of
perceived information needs and
information-seeking behavior among

the elderly Chinese immigrants in the
Los Angeles area. Ph.D. diss., The
Florida State University.

K C I

к с і